

Azathioprine 장기 복용 신이식환자에서 발생한 자발성 마미증후군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형복진 · 전연주 · 이희연 · 유지한 · 김수현 · 양철우 · 김용수 · 방병기

Spontaneous Cauda Equina Syndrome in a Renal Transplant Patient with Long-term Azathioprine Treatment

Bok Jin Hyoung, Yeon Joo Chun, Hee Yeon Lee, Ji Han Yu, Su Hyun Kim
Chul Woo Yang, Yong Su Kim, Byung Kee Bang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ivision of Nephrology

서론 : Azathioprine은 신이식시 고전적으로 쓰여지는 면역억제제로 심한 부작용없이 안정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zathioprine을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 골수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신이식후 azathioprine 복용 중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자발성 경막외 혈종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 34세 남자 환자가 내원 1주일 전부터 요통 및 왼쪽 하지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14년전 만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신이식을 받았으며 면역억제제로 azathioprine 50 mg, tacrolimus 6 mg, prednisolone 10 mg 복용하던 중 내원 3개월전 혈소판감소증 (당시 최저 혈소판 수치 32,000/mm³)으로 azathioprine은 중단한 상태였다. 내원시 이학적 검사에서 하지 직거상검사는 40° /30°, 제 5요추 및 제 1 천추 척수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분절의 감각저하, 항문조임근의 약화가 관찰되었다. 내원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9,240/mm³, 혈색소 7.8 g/dL, 혈소판 107,000/mm³ 이었고,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BUN 93.9 mg/dL, Cr 4.48 mg/dL, AST/ALT 27/32 IU/L, Na/K 147/5.4 mEq/L, Ca/P 7.7/4.4 mg/dL이었다.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제 5 요추부터 제2 천추 부위의 경막외혈종이 전방에서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내원 2일째 추궁판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시 소견으로 제 1, 2 천추부위에 혈종이 경막을 압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술후 6일에 하지 감각 및 항문조임근의 기능이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결론 : 장기적인 azathioprine투여시 골수억제로 인한 출혈성 합병증을 고려해야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혈소판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